



경선원에서 봉행된 다례제.



기념식수.

통일보살되어 불국정도 이루리

6.15 공동선언 실천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다례제 법회



경선원에 모셔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진영.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스님(왼쪽) 심상진 부위원장에게 선물 전달.

안개가 자욱했다. 이른 시간이지만 했지만 임진각에서 험류한 7대의 버스가 남측 CIQ(출입국관리소)를 거쳐 북측 CIQ에 이르는 시간까지 안개는 걸리지 않았다. 대한불교 천태종 중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신도들이 개성 영통사로 향하는 길이었다. 11월 14일, '6.15 공동선언 실천 대각국사 의천스님 열반다례제 법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간, 안개 자욱한 이 날은 '어제의 날'도 아니고 '내일의 날'도 아닌 오직 2007년 11월 14일이라는 '오늘의 날'일 뿐이었다. 물론 무시무증의 시간 속에 오늘이 있을 수도 없다. 900여 년 전, 1101년 늦가을 입적한 고려의 국사 의천 스님을 기리는 다례제의 의미를 분절체로서의 시간 속에서 따질 일은 아니다. 계절이 수 없는 반복을 분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날의 다례제는 시간이 아닌 공간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의미를 품고 있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향연이 되살아 난 영통사는 남북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숭고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영통사, 개성시내를 벗어나 산길을 돌고 호수를 휘돌아 도착한 오후산 영통사는 가을보다 깊은

고요에 침잠되어 있다가 불심 가득한 남측의 사부대중이 당도하자 덩실 춤이라도 추는 듯했다. 맑은 계곡물과 장엄한 봉우리를 그리고 산뜻하게 복원된 당우들이 한 폭 그림으로 남측의 사부대중을 반겼다.

대웅전격인 보광원(普光院) 앞 북측의 국보 제133호인 5층 석탑을 가운데로 하고 300여 남북의 사부대중이 정연하게 앉으면서 법회는 시작됐다.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의 정서중 서기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시작된 법회는 중정 도용 스님을 시작으로 헌화와 헌향을 하면서 엄숙함을 더하기 시작했다. 법회에는 남측에서 천태종 중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무원 스님 사회부장 경천 스님 등 종단 주요 지도자와 270여 명의 신도들이 참가 했고 북측에서는 조불련 심상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서중 서기장

한서중 부장 차금술
 부장 최용호 김
 진삼 장철수
 (해명, 영
 통 사

주지 스님 등과 안내원이 참가했다.

반세가 넘은 분단의 시간을 뛰어넘어 남북 불자들의 합일된 의지로 영통사가 복원되고 그 너른 마당에서 남과 북의 불자들이 함께 합장하고 하나의 목탁에 맞춰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이어지는 법회. 분명이 법회는 분단이라는 시간과 이념이라는 공간을 다 넘어선 곳에서 대각국사의 의천 스님의 '회삼귀일' 사상을 눈앞에 드러내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향연(香煙)같은 안개가 산허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법회에서 심상진 조불련 부위원장은 "불신 대결의 북남 관계가 6.15 선언의 기치 아래 화해 단합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북남의 불교도가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물론 답아 화합하고 통일불사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도 "대각국사의 회삼귀일과 회통정신을

분단의 오늘에 들어서 통일불교토를 이룩하는데 합심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의 대표자들이 열망하는 민족 화합과 통일의 '열망'은 천태종 사회부장 경천 스님과 영통사 주지 해명 스님이 함께 봉독한 발원문에서 절절하게 묻어났다.

"법계에 가득하신 거룩한 부처님, 뜻 깊은 10월에 이어 찾아 온 11월에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한마음 기울여 합장 발원 하오니 오늘의 이 '6.15 공동선언 실천 대각국사 의천스님 열반다례제법회'가 내 나라 통일을 위해 나선 북과 남의 사부대중들이 6.15 통일 시대를 빛내며 나아가는 어엿한 통일 보살로 거듭나는 소중하고도 또 소중한 순간이 되도록 무량한 가호를 내려 주십시오."

법회에 이어 대종들은 보광원 뒤쪽의 경선원(敬先院)에 모셔진 대각국사 의천 스님 영정 앞으로 모였다. 각종 재물이 차려진 가운데 중정 도용 스님의 헌향으로 다례가 봉행됐고 참가자들은 의천 스님의 가르침이 통일의 영광으로 나투기를 염원했다. 그 영원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비가 서 있는 영통사 앞 마당에 한 그루 소나무로 심어졌다. 소나무의 푸른 가지들은 새 땅에 뿌리를 내려 세세상생 그 푸름을 더해 갈 것이다. 남과 북, 북과 남의 불자들이 염원하는 통일불국정도가 열리는 그 날까지.

개성/글=임연태 사진=김주원 기자



6.15 공동선언 실천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 다례제 법회가 14일 개성 영통사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한서중, 최용호, 심상진, 부속 스님, 천태종 중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 의장 도정 스님, 김사원장 준광 스님.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역주, 포대화상향로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종) 35 × 50cm
(대) 42 × 65cm

오마니반
메움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얻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금강약들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 이상의 열과 생광광선이 발생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있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 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완화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속복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 발이 차신분 ◆오랫동안 참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폐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질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들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은열품 의료기인증 전자파 환경인증
 LIG배상보형 기인 실용실안출원 원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류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열복대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 / 일일공유도 상담 합니다.